



CIVICUS ALERT

2016 년 10 월 6 일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세계시민연합은 지난 9 월 25 일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농민 백남기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정부에게 백남기씨의 죽음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2015 11 월 14 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백남기씨(당시 69 세)는 대규모 시위에 참가하는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9 월 시위 참가 전 뇌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로 인해 317 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습니다.

백남기씨의 죽음 직후 경찰은 병원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막고, 시신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이 부검을 통해 시위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합니다.

농민단체에서 저명한 활동가인 백남기씨는 정부의 쌀 농업 촉진, 보상과 관련한 소극적인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2015 년 11 월 14 일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13 만명 이상의 학생, 노조원, 농민 그리고 농촌 빈곤층 등이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우려해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응으로 2 만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였고 시위대를 해체하기 위해 물대포, 후추 스프레이, 임의적 체포와 같은 폭력적이고,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시위에 이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0 명이 2015 년 11 월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소환되었고. 최소 20 명의 조합원이 8-18 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6 년 7 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의

위원장인 한상균씨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11월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진압은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대규모 체포, 물리적 힘의 사용, 법을 통해 시민활동가, 시위를 억압해왔습니다. 세계시민연합은, 국제, 국내 시민단체 유엔전문가들과 함께 평화적 시위 해산을 위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규탄합니다.

세계시민연합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i)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책임자들의 처벌 (ii) 시위대 해산을 위해 과도한 물리적 진압, 임의적 체포를 규탄합니다. (iii)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내정책, 관련 유엔권고안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를 지원하길 바랍니다.

세계시민연합은 지구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연합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참가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집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재 백남기씨에 죽음과 관련해서 집회의 결사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지하는 사례, 시민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행위 과도한 물리적 대한 사례를 모집하고 있으니, 혹시 백남기씨의 죽음, 2015년 11월 시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정보를 주실 분이 있으시면 wind5080@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